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서울 스테이크 부장
제1보좌 최 육한



사 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삼 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뜻깊은 달입니다. 또한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이 땅에 회복하신 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 : 25~26)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생의 목표를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강박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일성도들은 영원한 복음이 회복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복

음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세상에 이 회복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권 지도자를 지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인격 형성의 바탕이 되고 지도자로 성장하는 첩경입니다.

회복된 교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젊은 청년은 높은 인격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스러운 인격을 형성했을 때 복음을 지키는 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훌륭한 젊은이에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교회의 표준을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결심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표준을 지키지 않고서는 결코 진리의 역군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표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임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만 이를 행동에 옮겨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지상 생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맥케이 대판장님은 “교회의 모든 사람은 선교 사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얻은 기쁨을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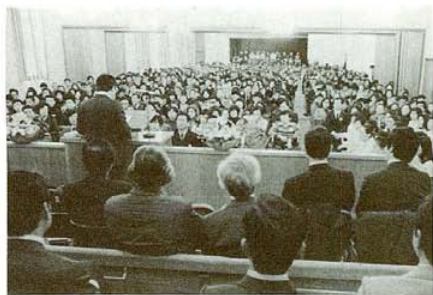
끝으로 부활절의 좋은 절기를 맞아 오천만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빈곤과 고통과 슬픔을 잊고 하나가 되어 슬기로운 민족과 번영된 국가로서 무궁토록 발전하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아멘 *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서울 서 스테이크는 1978년 ¼분기 스테이크 대회를 지난 2월 18일~19일 양일간에 걸쳐 6와드에서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가졌다.

2월 18일은 스테이크 역원회를 “청소년 활동 촉진”이란 주제로 가졌다. 이날 말씀에서 스테이크 부장 제2보좌 이 남선 형제는 비활동이 된 청소년을 친구, 정원회 고문, 가정 복음 교사, 장로 정원회 회장, 감독 등 많은 회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활동화시킨 사례를 말씀하였다. 이어 스테이크 부장제1보좌 김 차봉 형제는 “청소년 활동 3년 목표”를 구체적인 수자를 제시하면서 말씀하였다. 신권 역원회 참석자 수는 177명이었다.

19일에 열렸던 스테이크 일반 총회에서는 총관리 역원 및 스테이크의 모든 역원에 대한 지지를 물은 후 스테이크 선교사인 안양지부 소속 구 혜영 자매의 간증을 들었고 이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의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독일에서 귀국한 전 청운 지부장 이 영환 형제의 간증을 들은 후 이 남선 부장이 “가정에서의 복음 생활”이란 제목으로, 그리고



말씀하는 김 창선 부장과 회중

김 차봉 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 말씀하였다. 이날 주 연사인 김 창선 부장은 “선공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일성도는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년 주일학교에서는 “초등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모임을 대회가 열리고 있는 시간에 따로 가졌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에서는 2명의 칠십인과 18명의 장로가 새로 탄생되었다. 스테이크 일반 총회에는 1,312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였다. 서울 서 스테이크는 1978년 1월 현재 5개의 와드와 6개의 지부에 3,641명의 회원이 있다.

이른 신권 활동 촉진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모습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활동 모습

